

碩士學位論文

初等學生의 民主市民 意識에 관한 研究

- 濟州道內 初等學校 5·6學年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安 昶 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高 昌 根

2000年 8月

初等學生의 民主市民 意識에 관한 研究

- 濟州道內 初等學校 5·6學年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安 昶 範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高 昌 根

高昌根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初等學生의 民主市民 意識에 관한 研究

-濟州道內 初等學校 5·6學年生을 中心으로-

高 昌 根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安 昶 範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내 초등학교들의 민주시민 의식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도내 초등학교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 개선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실태 조사를 위해 '타인존중·협동심·신의·준법정신·공익정신·정의감'의 6개 하위 독립변인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도내 초등학교 9개교의 5·6학년 학생 564명을 대상으로 표집조사 하였다.

여기에서 표집조사된 설문내용은 개인별 특성(성별·학년별·학업성적·용돈액수)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 실태와 가정별 특성(부모학력·부모직업·거주지역·지역환경·형제수·양육태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 실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 의식 6개 하위 영역별 조사 결과 '협동심(4.15) >정의감(3.69) >신의(3.56) >타인존중(3.48) >공익정신(3.42) >준법정신(3.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은 3.58로써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개인별 특성에 나타난 시민의식 수준은 ①여학생이 남학생보다 ②5학년 학생이 6학년 학생보다 ③학업성적에 있어서 상위권인 학생이 하위권인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학년이 높고 사회화될수록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음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셋째, 가정별 특성에 나타난 시민의식 수준은 ①고학력인 부모를 둔 학생이 ②부모가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학생이 ③문화수준이 높고 큰 지역에 사는 학생이 ④형제수가 2~3명인 학생이 ⑤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가정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가정의 제반 교육적 환경 여건들은 초등학교들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2
II. 이론적 배경	4
1.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의식	4
2. 민주시민 교육 내용 탐색	9
3. 초등학교 도덕과 민주시민 교육 내용	12
III. 조사 방법	19
1. 조사대상	19
2. 조사도구	21
3. 자료처리	23
IV. 조사결과	24
1. 타인존중	24
2. 협동심	27
3. 신의	30
4. 준법정신	33
5. 공의정신	35
6. 정의감	39
7. 전체 민주시민 의식	41
V. 결론 및 제언	46
1. 결 론	46
2. 제 언	47
參攷文獻	49
Abstract	51
附 錄	53

표 목 차

<표- 1> 제6차 초등학교 도덕과 시민생활 영역의 내용 체계표	14
<표- 2> 개인 특성	19
<표- 3> 가정 특성	20
<표- 4> 설문지의 구성	21
<표- 5> 신뢰도 검증	23
<표- 6> 개인 특성별 타인 존중	24
<표- 7> 가정 특성별 타인존중	25
<표- 8> 개인 특성별 협동심	27
<표- 9> 가정 특성별 협동심	28
<표-10> 개인 특성별 신의	30
<표-11> 가정 특성별 신의	31
<표-12> 개인 특성별 준법정신	33
<표-13> 가정 특성별 준법정신	34
<표-14> 개인 특성별 공의정신	36
<표-15> 가정 특성별 공의정신	37
<표-16> 개인 특성별 정의감	39
<표-17> 가정 특성별 정의감	40
<표-18> 개인 특성별 전체 민주시민의식	42
<표-19> 가정 특성별 전체 민주시민 의식	43

그림 목 차

(그림 1)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구조	11
(그림 2) 학교 수준별 목표요소 영역의 구성	11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한 나라의 미래를 알아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청소년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자 주역으로 장차 국가와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게 될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의 발달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산업 사회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는 인간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간을 소비생활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배금주의, 물질만능 주의,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 사회정의의 부재, 공동체 의식의 결여, 인명 경시 풍조 등 도덕적 위기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가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에까지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이야말로 도덕성을 회복시켜주고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데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내면화하고, 이를 생활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교육의 현실은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기르는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타성화된 획일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개성을 신장하는 일에도 불충실하며, 기존의 지식을 암기하는 단순한 인간을 기르는 일에 급급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지식위주의 교과지도에 더 치중하고 있어 정의적 영역의

지도, 도덕적 인간을 위한 교육,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인지 근래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외래문화와 전통문화, 개인과 국가 등의 상대적인 특성을 잘 조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연구¹⁾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같은 연구들은 민주시민을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이나 저해요인들을 밝히는 등 민주시민 교육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주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의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첫째, 도내 초등학생의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둘째, 제주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1) 연구의 방법

제주도내 초등학교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실태 조사를 위해 타인존중,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의정신, 정의감의 6개 하위 변인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행정구역과 지역환경을 고려한 도내의 초등학교 9개교의 5·6학년

1) 이영기(1981), "산업사회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p.12.
정세구(1986), "시민정신 교육", 「미래지향 인간교육」,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학생 564명을 대상으로 표집조사한 것을 개인 특성과 가정 특성별로 나누어 SAS 통계 처리하였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있어서 민주시민 의식에 대해 직접적 관찰이 아닌 설문 조사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초등학생들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기 때문에 교사나 정부, 사회단체 등 외부적인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의식

1)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단순히 정치적 이념이나 제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좋은 민주주의 이념이나 제도를 채택했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의식구조나 생활양식이 여전히 비민주적 속성을 갖고 있을 때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그 기반을 다질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특징짓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리적 경험주의

합리적 경험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두고 모든 지식을 경험에 연유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며, 또한 그러한 노력은 무한한 과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것은 또한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진리를 어떻게 해서 얻을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²⁾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인간적 자각이라는 것은 이성적이며, 사물의 본질에 따라서 생각하며, 행동하는데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적 자각은 비민주적인 것을 개선해 나가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한다.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충동에 지배되기 쉬운 인간이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외부적 권력과 내부적 폭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참다운 자주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확고한 지성적 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성적 태도라 하면, 상황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태도다. 따라서 그것은 권력과 폭력을 배척하는 동시에 사욕에 빠지는 것을 피하며, 전통에 지배되어지는 보

2) 신정현 외(1987), 「민주시민교육론」, 서울:탐구당, p.138.

수적 태도를 배척함과 같이, 객관적 현실성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태도를 배척한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태도는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해로운 것이다.

이러한 옳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국민이 지성적으로 생각하며 지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³⁾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흑백논리나 독단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등은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 될 수 있게 된다.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집단생활에 참여하고 정부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질서와 조화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합리적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

(2) 자발적인 참여의식

민주주의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란 국민들 개개인이 공동 문제에 관해 스스로 관심을 갖고 그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자신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선택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각 개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나 정부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하다. 민주사회는 자율이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 전체의 일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⁶⁾

3) 교육학총서편찬위원회(1987), 「교육학총서」, 서울:교육서관, p.139.

4) 신정현 외(1987), 전개서, p.48.

5) 상계서, p.48.

6) 정세구(1985), 「국민정신교육의 과제」, 서울:교육과학사, p.119.

(3) 토론과 관용의 정신

민주주의 사회는 토론과 타협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토론 과정을 통해 주관적 가치 판단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을 서로간의 설득과 이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가치 기준에 입각한 관점으로 조정, 통합시킬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타협할 줄 아는 절차와 기술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⁷⁾

합의, 토론에 있어서 자기의 소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겸허하게 타인의 주장을 듣는 아량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현상은 대화의 단절이나 폭력이 등장하는 민주적 분위기의 파괴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자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생활 양식이다.⁸⁾

(4) 통합된 공동체 의식

개인은 언제나 혼자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협력하고 나아가 그의 질서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⁹⁾

사회는 각 개인들이 발휘하는 자질들을 통합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하면서 동시에 각 개인들의 최대한의 자아 실현에 작용한다는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자아실현의 상호작용이 개인과 사회의 보다 큰 복지를 제공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통합된 공동체의식은 협동심과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과 개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개개인이 공통적인 문제와 목적을 향해서 각 개인의 자질에 따라 부담을 나누면서

7). 신정현 외(1987), 전계서, p.49.

8). 정세구(1985), 전계서, p.118.

9). 신정현 외(1987), 전계서, p.49.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계획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곧 협동적 사회화 과정인 것이다.

건전한 사회는 그러한 협동적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체의 변천과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는 과격한 수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평화적이고 조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에 의한 지속적인 사회개조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협동적 집단과정에 대한 깊은 신념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이행과 기능을 구성원 각 개인에게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2) 민주시민 의식의 기본 요건

현대사회에서 시민의식의 향상은 시민권의 확립 및 신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민의식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¹⁰⁾

첫째로,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육체적 유기체로서 재생산하고 유지하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은 최소한 그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생산과 분배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곧 시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인적 및 물질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세계를 보는 하나의 공통적인 기본 방법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로서 함께 이해하고 서로 의사를 소통하며 또한 다같이 일할 수 있는

10) 안창호(1995), "국민학생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의식의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이병오(1994), "국민학교의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이영희(1994), "국민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5.
홍성기(1992), "국민학교 도덕과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합의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응집력과 통일된 방향에 따라 어떤 목적들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은 광범위한 교육제도 및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들은 교육의 과정을 통해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그 사회구성원이 사회적으로 행동하는데 필요한 규범이나 절차등을 계속 다음 세대에 전달해서 사회전체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민들은 그들 자신은 물론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을 철저히 주시시켜 사회가 민주적 질서를 견지하면서 생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넷째로, 시민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조화적인 기능수행을 위협하는 어떠한 파괴적 행위에 대해서도 통제 내지는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반사회적 행위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불법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민주주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시민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의 주체로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사회발전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들은 정치사회의 본질과 복잡한 정치과정에 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 전체적인 공동체의 정치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적절한 정치 참여는 그들의 의사나 이익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권력의 남용이나 부패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부의 활동은 언제나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시민들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다같이 정치적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덕성을 갖추고 있는 시민들이 존재할 때 그 정치사회는 도

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공동체의 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된다. 이렇게 될 때 민주주의 참 뜻이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식의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이다.

2. 민주시민 교육 내용 탐색

1) 도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과의 관계

동서양에 있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도덕교육과 시민교육이었다.¹¹⁾ 도덕교육은 “道”의 교육과 “德”의 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道”의 교육은 사람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올바른 도리가 무엇이나에 관한 교육이며 “德”의 교육은 인간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올바른 도리를 실천에 의하여 체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옳고 선한 행위의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연 상태의 인간을 가치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도덕적 성향을 형성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¹²⁾

독일의 교육학자 헐트는 교육의 목적이 도덕적 품성의 도야에 있다고 하여 도덕에서의 도덕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도덕교육이 도덕적 품성의 도야 즉, 도덕적 인간의 형성에 있다고 할 때 도덕교육은 현대적 신념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말하는 시민교육이란 도덕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더불어 잘살기 위한 그 시대상황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통합교육이라 할 때,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한 도덕적 위기 상황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적인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부(富)는 어느정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의 지도에

11) 유인중, “도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 제10호, p.1.

12). 김희식(1987), “도덕교육 전개과정에 있어서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공주교육대학, 제22집, p.132.

는 소홀한 결과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졌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정의의 부재현상을 낳았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태도는 공동체의식을 해체시켰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나 공익에 대한 관념을 희박하게 만들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까지도 강요하는 세태가 된 것이다.

김갑철 교수는 우리의 도덕적 정신적 생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방해하고 방향감각을 흐리게 하는 등 온갖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증후군으로 편법주의와 적당주의,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의 팽배, 가치관의 전도현상, 흉악범죄와 인명경시 풍조, 과소비의 만연과 사치풍조, 향락문화의 팽배, 퇴폐적인 사회 환경, 인간존엄성 경시, 가정윤리의 파괴, 노인문제, 가정과 사회 교육의 부재, 비행 청소년의 문제 등을 들고 있다.¹³⁾

그리고 문용린 교수는 우리사회의 도덕적 위기의 본질은 도덕적 판단력의 결여 또는 미숙으로 보고 이는 개인간 또는 개인과 사회 국가간의 이해득실의 갈등과 상충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징표라고 분석하였다.¹⁴⁾ 이러한 도덕적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학교교육 특히, 도덕교육의 과제이다.

도덕교육이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볼 때 이런 건전한 도덕성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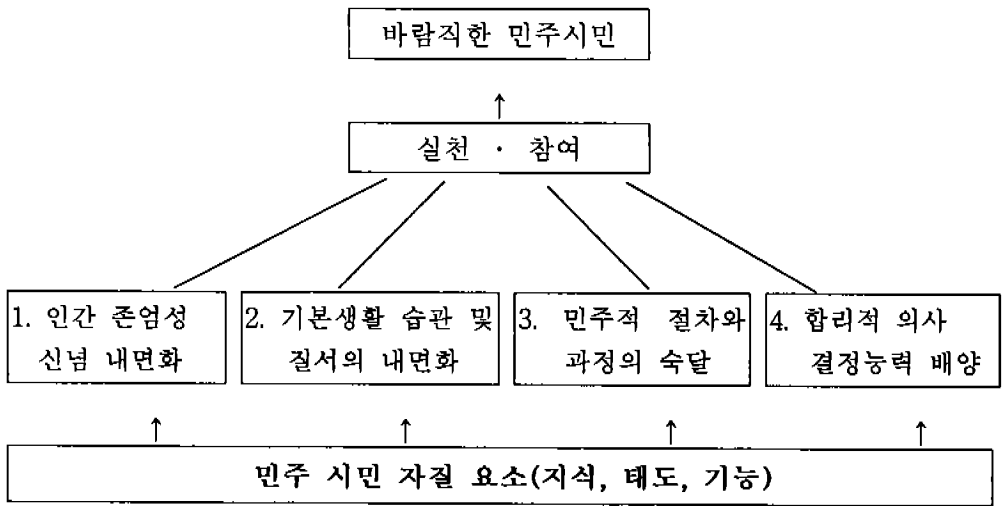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건설에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함양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처한 도덕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2) 민주시민 자질 기본 학습요소

13) 김갑철(1991), “도덕성 회복과 윤리교육의 과제”, 한국윤리학회, pp.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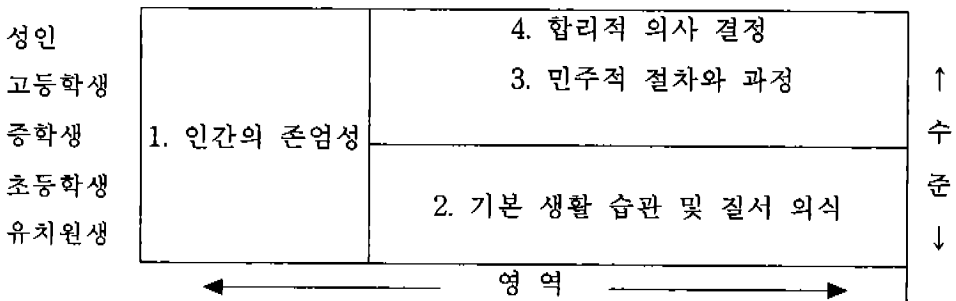
14) 문용린(1990), “한국사회의 도덕적 위기:그 본질과 대책”, 민주문화논총, 창간호, pp.37-38.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4개 영역은 학교급별로 지식, 태도, 기능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림 1)의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구조도를 보면 4개 영역이 구체적 내용의 학습과 실천을 통한 민주시민 형성모형¹⁵⁾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구조

현재 6차교육과정에서는 (그림 2)처럼 각급 학교급별 시민 자질의 영역인 인간의 존엄성, 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의 필요한 학습 분량을 각각 차이있게 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2) 학교 수준별 목표요소 영역의 구성

15) 최유선(1997),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초은 윤용탁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문창출판사, pp.441-442.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유치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나 일정한 영역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 의식’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주로 강조되어야 할 목표이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 숙달과 합리적 의사 결정’은 학년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강조되어 지도되어야 할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자질 영역은 주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3. 초등학교 도덕과 민주시민 교육 내용

1) 초등학교 도덕과 시민생활 규범 선정 배경

오늘날의 교육현실은 여러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교육 즉, 덕성 교육적 측면이 거의 부재현상에 이르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제5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도덕과에 시민생활 영역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규범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선정된 규범들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도덕과 교육은 도덕적 원리나 규범들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의미로만 해석해 왔다는 점이다.¹⁶⁾ 이러한 개인윤리적인 시각은 점차 교류가 빈번해지고 관련성이 점점 증가되는 현대사회의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¹⁷⁾ 민주사회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다양성이 존중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기와 다른 취미나 가치관을 가

16). 정용술(1991),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자”, 한국민주시민교육 연구회보, 제14호, pp. 1-2.

17). 문교부(1994),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시 인쇄 공업 협동조합, p 203.

진 다른 사람들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임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지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종래의 교육과정이 수동적인 시민을 기른다는 비판을 받았음에 감안하여 자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은 단지 수행해야 할 의무보다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한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자유 민주주의 사회 곧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자유경쟁의 이념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성원들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은 서로에게 도전과 자극 그리고 의욕을 제공해주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어 경쟁과 함께 협동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현실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민주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서로가 신뢰하는 마음의 풍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는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팽배, 지역 및 계층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 심화,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소외계층의 증가, 사회 문화적 권위의 붕괴에 따른 규범적 통제력의 약화 등으로 인한 사회전반에 걸친 불신 풍토가 뿌리깊게 자리잡아 국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도내용을 강화하였다.

넷째, 민주사회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의 및 평등의 문제는 오늘날 윤리학 및 사회철학의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평등의 의미는 단순한 “평등”의 의미는 아니며, 주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같이 원리적인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사회정의에 기여하는 바가 의심스럽다는 주장과 함께 “실질적 평등”이니 “분배적 정의”니 하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 주장들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분배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적절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2) 초등학교 도덕과 시민생활 관련 덕목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은 저학년의 바른생활과에서 배운 기본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성 형성의 기초를 다지며 사회 성원으로 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자질을 기르게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 사회의 도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제6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시민생활 영역의 주요 지도 요소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제6차 초등학교 도덕과 시민생활 영역의 내용 체계표

관련덕목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시 민 생 활	신의 준법	약속 이행 /	/ 자유와 책임	신뢰하는 사회 /	/ 준법의 이유
	타인존중	타인이해	차별 안하기	타인의익 존중	타인의견 존중
	협동	합심 단결	경쟁과 협동	시민 협동	봉사하는 마음
	공익	공공시설	공중 도덕	자유와 질서	공익과 사회
	정의	공정한 행동	정의감과 용기	민주사회	정의 사회

(1) 타인존중

민주주의 사회는 각 개인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판단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과 이익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사람들의 욕구와 의견은 더욱 다양화 세분화 되어 분출된다.

이럴 경우 흔히 다수의 의견을 좇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수결 원칙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 일지라도 좋은 점은 수용되어야 하며 다수결 근본정신은 평등의 이념과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¹⁸⁾

(2) 협 동

협동은 인간사회가 번영하고 발전해 가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과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협동하는 슬기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은 자연히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능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협동이 강요되거나 맹목적인 것이 되면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사회로 퇴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서로간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바탕위에서 자발적으로 도와갈 때 자연스러운 협동의식은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호뭇함을 맛볼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¹⁹⁾

(3) 신 의

신의는 밝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신뢰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규범들이 바르게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직, 믿음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규범이 없이는 어느 하나도 바르게 정립될 수 없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시대를 흔히 불안의 시대, 또는 불신의 시대라고도 한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또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불신을 극도의 개인주의에 의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서도 찾아 볼수 있다. 즉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불신과 불안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사회에는 이웃과 이웃간에 서로 믿고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밝고 긍정적인 면을 찾

18)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도덕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p.118.

19) 교육부(1997), 초등학교교사용지도서, 도덕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p.117.

아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할 때 의심이 짝트고 의심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속에서 서로 믿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불신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 나갈 때 믿음이 자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도움은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맺어진 결속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²⁰⁾

(4) 준 법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는데 사회규범에는 종교규범, 도덕규범, 관습등이 있다. 종교규범은 인간의 신앙심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앙심이 약해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규범이 무력해진다. 도덕규범은 인간의 양심을 발동시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양심에 떳떳하고 나쁜일을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종교규범과 도덕규범을 지켜 왔으며, 이 규범들이 관습이 되어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종교규범과 도덕규범이 무력해지고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관습도 무너지게 된다. 이럴 때 그 사회규범을 강제를 써서라도 지키게 할 필요가 생긴다. 이처럼 어떠한 사회규범이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되는 경우에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이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령이나 법규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명령이나 법규가 개인의 양심에 의하여 도덕적 의무 부과와 힘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더욱 튼튼한 기초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받기 싫은 것처럼 남도 나에게서 피해를 받기

20) 상계서, p 109.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약속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도덕, 규칙, 법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²¹⁾

(5) 공 의

공의이란 일반 사회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익 즉 사익에 상대되는 말이다. 우리는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공동사회란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좁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 학급, 학교 나아가서는 향토사회, 국가일 수도 있다. 그 어느 사회든 내가 개인으로서 거기에 속하고 있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의를 앞세운다는 말은 개인의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전체이익을 생각함을 뜻한다. 한편, 공덕심이란 공의를 위한 도덕적 태도로서 공의와 서로 뜻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공의를 위한 행동은 우리의 생활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차례와 질서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생활을 위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며, 여럿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애호하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 더 나아가 준법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공의를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데 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고도의 산업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타인의 입장이나 이익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자신과 가족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타인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이 확산된다면, 그 병폐는 극심할 것이며 결국 사회의 일반적 공덕심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사회가 지탱, 유지 발전되려면 때로는 개인의 이익도 공의를 위해서는 일부 억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덕심의 함양을 통해 스스로 조화를 창출해 내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²²⁾

21) 교육부(1997), 전개서, p. 126.

(6) 정 의

자연계나 인간의 세계는 모두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규칙과 질서에는 자연질서와 사회질서가 있다. 자연질서는 인간의 의지와 소망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질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며 없어지기도 하는 소위 인위적 질서이다.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의 근본적 차이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의해 생긴다. 인간사회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 즉, 정의가 존재한다. 정의는 인간을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정의라고 하며 이는 모든 사회질서의 근본이 된다. 이러한 사회질서에서는 한 개인이 고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노력과 재능, 개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거나 생활을 여위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에 있게 된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하는 일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타인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증대에 기여하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정의는 공동체의 질서를 수호하며 공동복지의 실현을 보장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의롭고 정직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정의로워야 함을 깊이 깨닫도록 해야한다.²²⁾ 그리하여 매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태도를 가진 민주 시민을 육성하여야 한다.

22) 상계서, p. 111.

23) 교육부(1997), 전개서, p.99

Ⅲ. 조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2000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걸쳐 제주도 시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읍지역(조천읍, 애월읍,성산읍), 면지역(한경면, 안덕면, 추자면, 우도면)에 소재한 9개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 부모가 모두 있는 564명(남 280명, 여 2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 개인 특성

구	분	N	%
성 별	남	280	49.6
	여	284	50.4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82	50.0
	초등학교 6학년	282	50.0
성 적	상위권	60	10.6
	중상위권	171	30.3
	중위권	227	40.2
	중하위권	76	13.5
	하위권	30	5.4
용 돈	5천원 미만	241	42.7
	5천원-1만원	156	27.7
	1만원-2만원	109	19.3
	2만원 이상	58	10.3
계		564	100.0

먼저 조사대상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49.6%, 여학생이 50.4%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5학년이 50%, 6학년이 50%, 성적별로는 상위권이 10.6%, 중상위권 30.3%, 중위권 40.2%, 중하위권 13.5%, 하위권 5.4%로 나타났다. 한달 용돈별로는 5천원 미만 42.7%, 5천원-1만원 27.7%, 1만원-2만원 19.3%, 2만원 이상 10.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학생들의 가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3> 가정 특성

구	분	N	%
부 학력	중졸 이하	82	14.5
	고졸	317	56.2
	대졸 이상	165	29.3
모 학력	중졸 이하	101	17.9
	고졸	368	65.2
	대졸 이상	95	16.8
부 직업	판매 기술직	102	18.1
	자영업	157	27.8
	사무직종	148	26.2
	기타	157	27.8
모 직업	판매 기술직	67	11.9
	자영업	109	19.3
	사무직종	44	7.8
	가정주부	264	46.8
	기타	80	14.2
거주지역	시	166	29.4
	읍	230	40.8
	면	168	29.8
지역환경	도시	169	30.0
	농촌	295	52.3
	어촌	100	17.7
형제 수	1명	40	7.1
	2명	249	44.1
	3명	191	33.9
	4명 이상	84	14.9
양육태도	일방적	51	9.0
	방관적	92	16.3
	협력적	364	64.5
	전적 신뢰	57	10.1
계		564	100.0

아버지 학력에서 고졸자가 56.2%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역시 고졸자가 65.2%로 가

장 많았다. 아버지 직업에서는 판매기술직, 자영업자, 사무직 종사자가 각각 18.1%, 27.8%, 26.2%로 나타났고 기타 직종 27.8%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에서는 주부가 46.8%로 가장 많았고 판매기술직 11.9%, 자영업19.3%, 사무직 7.8%, 기타 직종 14.2%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 거주 학생이 29.4%, 읍 40.8%, 면 29.8%로 나타났다. 지역 환경으로는 도시 30%, 농촌 52.3%, 어촌 17.7%로 나타났다. 형제 수별로는 1명이 7.1%, 2명 44.1%, 3명 33.9%, 4명 이상 14.9%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 태도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9%, 방관적 태도 16.3%, 협력적 64.5%,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10.1%로 나타났다.

2. 조사 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도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한 이영희²⁴⁾의 민주시민 의식 조사 도구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민주시민 의식은 타인존중,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의정신, 정의감의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설문지의 구성

구분	설문지 내용	문번호
조사 대상자의 특성	0 개인특성별 : 성별 · 학년 · 학업성적 · 매월 용돈 액수 0 가정특성별 : 부모학력 · 부모직업 · 거주지역 · 지역환경 · 형제수 · 양육태도	1-4 5-10
초등학교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타인존중 0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17
	0 학급회의를 할 때,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	20
	0 나는 공부 못하거나 약한 친구를 무시하지 않는다.	24
	0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해결한다.	32
	0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소중한다고 생각한다.	35

²⁴⁾ 이영희, 전제논문

구분		설문내용	문번호
초 등 학 생 의 민 주 시 민 의 식	협동심	0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여러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13
		0 내가 하기 어려운 일도 힘을 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22
		0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다.	26
		0 나는 가족들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한 도와 주려고 한다.	36
신 의	0 나는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11	
	0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으면 되돌려 준다.	15	
	0 아무리 양심적으로 물건을 팔아도 성공하지 못한다.	19	
	0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꼭 책임을 진다.	34	
준법정신	0 우리사회에서 정한 법과 규칙은 지켜야 한다.	12	
	0 나는 교통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6	
	0 나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27	
	0 나는 환경보호적인 차원에서 항상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한다.	29	
공익정신	0 나는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린 적이 있다.	33	
	0 나는 공원에 놀러가서 놀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운다.	18	
	0 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23	
	0 나는 도서관, 식당,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한다.	28	
정 의 감	0 나는 학교의 모든 물건은 내 물건처럼 소중히 여겨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30	
	0 운동경기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정정당당히 경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4	
	0 나는 친구가 옳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못하게 한다.	21	
	0 나는 자라서 이웃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다.	25	
		0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면 지적해주거나 충고해 준다.	31

우선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문항1,2,3,4)과 가정적인 특성(문항5,6,7,8,9,10)을 나타내는 문항에 표기를 끝낸 후, 민주시민 의식을 나타내는 6개의 하위 영역(문항11번부터 37번까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6개 영역의 전체적인 점수는 전체 민주시민 의식을 의미하며 각 문항의 정도에 있어서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그저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개의 범주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각 문항 당 점수를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였으며, 부정적 문

항의 경우는 그 역(逆)으로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2) 신뢰도 검증

본 연구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5> 신뢰도 검증

구 분	문항 수	Alpha
타인존중	5	0.5908
협동심	4	0.5987
신의	4	0.5036
준법정신	5	0.5251
공익정신	4	0.6767
정의감	5	0.6174
전체 민주시민의식	27	0.8495

학생들의 타인존중,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익정신, 정의감에서의 민주시민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검증 결과, α 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문항들이 신뢰롭다고 판단된다.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알아보는 연구로써 이를 위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민주시민 의식의 6개 하위 독립변인에 대해서는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여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를 가지고 변인별 반응 경향을 파악하였다.

IV. 조사 결과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도덕 교육과정에서 지도하는 민주시민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영역을 타인 존중, 협동, 신의, 준법정신, 공익, 정의의 6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각 부문별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타인 존중

타인 존중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 평균 3.48로써 그다지 높지 않았다.

개인 특성별로 학생들의 타인 존중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개인 특성별 타인 존중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280	2.39	0.62	-3.46***	0.0006
	여	284	3.57	0.62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82	3.56	0.62	3.17**	0.0016
	초등학교 6학년	282	3.39	0.62		
성 적	상위권	60	3.77	0.61	10.70***	0.0001
	중상위권	171	3.63	0.59		
	중위권	227	3.36	0.63		
	중하위권	76	3.33	0.56		
용 돈	5천원 미만	241	3.47	0.62	2.02	0.1096
	5천원-1만원	156	3.55	0.63		
	1만원-2만원	109	3.37	0.63		
	2만원 이상	58	3.54	0.64		
계		564	3.48	0.63		

** p<.01, *** p<.001

성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3.46, p<.001$), 남학생이 평균 2.39, 여학생이 평균 3.57로써,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타인 존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t=3.17, p<.01$), 5학년이 평균 3.56, 6학년이 평균 3.39로 5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보다 타인존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분석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0.70, p<.001$), 상위권 학생들이 평

균 3.77로 타인 존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 학생이 평균 3.22로 타인 존중이 가장 낮았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타인 존중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달 용돈별 타인존중 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달 용돈이 1만원-2만원인 학생들이 타인 존중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정 특성별로 학생들의 타인존중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가정 특성별 타인존중

구	분	N	Mean	SD	F	p
부 학력	중졸 이하	82	3.40	0.69	3.13*	0.0445
	고졸	317	3.44	0.58		
	대졸 이상	165	3.58	0.67		
모 학력	중졸 이하	101	3.38	0.63	2.61	0.0747
	고졸	368	3.47	0.63		
	대졸 이상	95	3.59	0.61		
부 직업	판매 기술직	102	3.43	0.62	4.10**	0.0068
	자영업	157	3.48	0.58		
	사무직종	148	3.62	0.68		
	기타	157	3.38	0.61		
모 직업	판매 기술직	67	3.46	0.57	1.40	0.2317
	자영업	109	3.56	0.60		
	사무직종	44	3.59	0.63		
	가정주부	264	3.46	0.67		
	기타	80	3.37	0.55		
거주지역	시	166	3.63	0.66	7.93***	0.0004
	읍	230	3.45	0.62		
	면	168	3.37	0.57		
지역환경	도시	169	3.63	0.65	11.72***	0.0001
	농촌	295	3.36	0.60		
	어촌	100	3.56	0.58		
형제 수	1명	40	3.25	0.57	2.00	0.1130
	2명	249	3.50	0.63		
	3명	191	3.50	0.66		
	4명 이상	84	3.48	0.55		
양육태도	일방적	51	3.30	0.51	3.62*	0.0130
	방관적	92	3.38	0.70		
	협력적	364	3.54	0.62		
	전적 신뢰	57	3.41	0.58		
계		564	3.48	0.63		

* p<.05, ** p<.01, *** p<.001

먼저 아버지 학력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13, p<.05$), 아버지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졌을 때 타인존중 의식이 평균 3.58로 높게 나타났고 중졸 이하 학력을 가졌을 때에는 평균 3.40으로 타인 존중 의식이 낮았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타인존중 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졌을 때 타인존중 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중졸 이하 학력을 가졌을 때 타인 존중 의식이 낮았다. 즉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타인존중 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별로도 타인 존중 의식은 차이를 보였는데($F=4.10, p<.01$),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타인 존중 의식이 평균 3.62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판매기술직, 자영업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즉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타인 존중 의식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자영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학생들의 타인 존중 의식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7.93, p<.001$),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타인 존중 의식이 평균 3.63으로 가장 높았고, 읍 지역 학생은 평균 3.45, 면 지역 학생은 평균 3.37로 타인 존중 의식이 가장 낮았다. 즉 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타인 존중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환경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는데($F=11.72, p<.001$), 도시 지역 학생들은 평균 3.63으로 타인 존중이 가장 높았고, 농촌 평균 3.36로 타인 존중 의식이 낮았다. 어촌 지역 학생들은 평균 3.56으로 타인 존중 의식이 다소 높았다. 즉 도시 지역 학생들의 타인 존중 의식이 가장 높고, 농촌 지역 학생의 타인 존중 의식이 가장 낮았다.

형제 수별 분석에서는 형제 수가 2명, 3명인 경우 타인 존중 의식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고 형제 수가 1명인 경우 학생들의 타인 존중 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 태도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62, p<.05$), 부모가 협력적일 때 타인 존중 의식이 평균 3.54로 높게 나타났고, 일방적이거나 방관적일 때는 평균 3.30, 3.38로 타인 존중 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자녀의 타인 존중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2. 협동심

협동심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 평균 4.15로써 높게 나타났다.

개인 특성별로 학생들의 협동심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8>과 같다.

<표-8> 개인 특성별 협동심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280	4.09	0.58	-2.50*	0.0125
	여	284	4.21	0.59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82	4.20	0.61	2.19*	0.0293
	초등학교 6학년	282	4.09	0.56		
성 적	상위권	60	4.35	0.56	15.03***	0.0001
	중상위권	171	4.33	0.50		
	중위권	227	4.09	0.59		
	중하위권	76	3.90	0.59		
	하위권	30	3.73	0.64		
용 돈	5천원 미만	241	4.09	0.58	2.42	0.0656
	5천원-1만원	156	4.24	0.58		
	1만원-2만원	109	4.11	0.59		
	2만원 이상	58	4.22	0.63		
계		564	4.15	0.59		

* $p<.05$, *** $p<.001$

성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2.50, p<.05$), 남학생이 평균 4.09, 여학생이 평균 4.21로써,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협동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t=2.19, p<.05$), 5학년이 평균 4.20, 6학년이 평균 4.09로, 5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보다 협동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분석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5.03, p<.001$), 상위권 학생들이 평

군 4.35로 협동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 학생이 평균 3.73으로 협동심이 가장 낮았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협동심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달 용돈별 타인존중 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달 용돈이 5천원 미만 작은 학생들의 협동심이 낮게 나타났다.

가정 특성별로 학생들의 협동심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9>와 같다.

<표-9> 가정 특성별 협동심

구	분	N	Mean	SD	F	p
부 학력	중졸 이하	82	4.12	0.55	1.45	0.2357
	고졸	317	4.12	0.57		
	대졸 이상	165	4.21	0.64		
모 학력	중졸 이하	101	4.09	0.56	0.86	0.4248
	고졸	368	4.15	0.60		
	대졸 이상	95	4.19	0.57		
부 직업	판매 기술직	102	4.13	0.59	1.04	0.3730
	자영업	157	4.12	0.58		
	사무직종	148	4.22	0.60		
	기타	157	4.12	0.58		
모 직업	판매 기술직	67	4.16	0.54	1.31	0.2656
	자영업	109	4.24	0.55		
	사무직종	44	4.23	0.64		
	가정주부	264	4.11	0.60		
	기타	80	4.08	0.61		
거주지역	시	166	4.25	0.61	3.76*	0.0239
	읍	230	4.12	0.59		
	면	168	4.08	0.55		
지역환경	도시	169	4.24	0.62	3.63*	0.0270
	농촌	295	4.09	0.57		
	어촌	100	4.18	0.59		
형제 수	1명	40	3.91	0.63	3.47*	0.0161
	2명	249	4.17	0.56		
	3명	191	4.20	0.58		
	4명 이상	84	4.07	0.66		
양육태도	일방적	51	3.91	0.58	12.22***	0.0001
	방관적	92	3.90	0.60		
	협력적	364	4.25	0.57		
	전적 신뢰	57	4.12	0.56		
계		564	4.15	0.59		

* p<.05, *** p<.001

먼저 아버지 학력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졌을 때 학생들의 협동심이 더 높았다.

또한 어머니 학력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 학력이 높을 수록 학생들의 협동심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학생들의 협동심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자영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학생들의 협동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76, p<.05$),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협동심이 평균 4.25로 가장 높았고, 읍 지역 학생은 평균 4.12, 면 지역 학생은 평균 4.08로 협동심이 낮았다. 즉 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협동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환경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는데($F=3.63, p<.05$), 도시 지역 학생들은 평균 4.24로 협동심이 가장 높았고, 농촌 평균 4.09로 협동심이 낮았다. 어촌 지역 학생들은 평균 4.18로 나타났다. 즉 도시 지역 학생들의 협동심이 가장 높고, 농촌 지역 학생의 협동심이 가장 낮았다.

형제 수별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는데($F=3.47, p<.05$), 형제 수가 1명인 경우 협동심이 평균 3.9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자녀수가 2명, 3명일 때에는 평균 4.17, 4.20으로 협동심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 태도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2.22, p<.001$), 부모가 협력적일 때 협동심이 평균 4.25로 높게 나타났고, 일방적이거나 방관적일때는 평균 3.91, 3.90으로 협동심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협동심이 높게 나타났다.

3. 신 의

신의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 평균 3.56으로써 그다지 높지 않았다.

개인 특성별로 학생들의 신의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 개인 특성별 신의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280	3.52	0.66	-1.18	0.2399
	여	284	3.59	0.63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82	3.62	0.66	2.34*	0.0195
	초등학교 6학년	282	3.49	0.63		
성 적	상위권	60	3.90	0.73	13.00***	0.0001
	중상위권	171	3.71	0.58		
	중위권	227	3.47	0.62		
	중하위권	76	3.33	0.59		
	하위권	30	3.22	0.65		
용 돈	5천원 미만	241	3.53	0.66	0.48	0.6955
	5천원-1만원	156	3.61	0.63		
	1만원-2만원	109	3.54	0.62		
	2만원 이상	58	3.53	0.66		
계		564	3.56	0.65		

* $p < .05$, *** $p < .001$

성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의가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t=2.34$, $p < .05$), 5학년이 평균 3.62, 6학년이 평균 3.49로, 5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보다 신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분석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3.00$, $p < .001$), 상위권 학생들이 평균 3.90으로 신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 학생이 평균 3.22로 신의가 가장 낮았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신의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달 용돈별 신의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달 용돈이 5천원-1만원인 학생들의 신의가 다소 더 높았고 그 외 학생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가정 특성별로 학생들의 신의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표-11> 가정 특성별 신의

구	분	N	Mean	SD	F	p
부 학력	중졸 이하	82	3.46	0.62	5.82**	0.0031
	고졸	317	3.51	0.63		
	대졸 이상	165	3.70	0.67		
모 학력	중졸 이하	101	3.48	0.63	3.34*	0.0362
	고졸	368	3.54	0.64		
	대졸 이상	95	3.70	0.65		
부 직업	판매 기술직	102	3.50	0.59	4.64**	0.0032
	자영업	157	3.56	0.61		
	사무직종	148	3.71	0.69		
	기타	157	3.45	0.65		
모 직업	판매 기술직	67	3.50	0.62	3.67**	0.0059
	자영업	109	3.75	0.64		
	사무직종	44	3.63	0.64		
	가정주부	264	3.49	0.63		
	기타	80	3.52	0.69		
거주지역	시	166	3.74	0.67	11.81***	0.0001
	읍	230	3.53	0.64		
	면	168	3.41	0.58		
지역환경	도시	169	3.72	0.68	8.08***	0.0003
	농촌	295	3.49	0.62		
	어촌	100	3.47	0.60		
형제 수	1명	40	3.42	0.62	1.21	0.3037
	2명	249	3.60	0.66		
	3명	191	3.52	0.62		
	4명 이상	84	3.56	0.64		
양육태도	일방적	51	3.39	0.63	4.04**	0.0074
	방관적	92	3.41	0.65		
	협력적	364	3.62	0.63		
	전적 신뢰	57	3.53	0.67		
계		564	3.56	0.65		

* p<.05, ** p<.01, *** p<.001

먼저 아버지 학력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5.82, p<.01$), 아버지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졌을 때 신의가 평균 3.70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졸 이하 학력을 가졌을 때에는 평균 3.46으로 신의가 낮았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신의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는데($F=3.34, p<.05$),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졌을 때 신의가 평균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졸 이하 학력을 가졌을 때 신의가 평균 3.48로 가장 낮았다. 즉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신의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별로도 신의는 차이를 보였는데($F=4.64, p<.01$),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신의가 평균 3.71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판매기술직, 자영업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즉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신의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직업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67, p<.01$), 어머니가 자영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학생들의 신의가 평균 3.75, 3.63으로 다소 더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가 주부인 경우 신의가 평균 3.49로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1.81, p<.001$),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신의가 평균 3.74로 가장 높았고, 읍 지역 학생은 평균 3.53, 면 지역 학생은 평균 3.41로 신의가 가장 낮았다. 즉 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신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환경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는데($F=8.08, p<.001$), 도시 지역 학생들은 평균 3.72로 신의가 가장 높았고, 농촌, 어촌 학생은 평균 3.49, 3.47로 신의가 낮게 나타났다. 즉 도시 지역 학생들의 신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제 수별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형제 수가 1명인 경우 신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 태도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4.04, p<.01$), 부모가 협력적일 때 신의가 평균 3.62로 높게 나타났고, 일방적이거나 방관적일 때는 평균 3.39, 3.41로 신의가 낮게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일 때 자녀의 신의가 높게 나타났다.

4. 준법정신

준법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 평균 3.26으로써 높지 않았다.

개인 특성별로 학생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표-12> 개인 특성별 준법정신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280	3.22	0.60	-1.77	0.0777
	여	284	3.31	0.58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82	3.40	0.59	5.54***	0.0001
	초등학교 6학년	282	3.13	0.56		
성 적	상위권	60	3.52	0.64	7.46***	0.0001
	중상위권	171	3.35	0.56		
	중위권	227	3.23	0.59		
	중하위권	76	3.07	0.48		
	하위권	30	3.03	0.63		
용 돈	5천원 미만	241	3.27	0.61	0.69	0.5613
	5천원-1만원	156	3.29	0.57		
	1만원-2만원	109	3.19	0.54		
	2만원 이상	58	3.29	0.66		
계		564	3.26	0.59		

*** $p < .001$

성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준법정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t=5.54$, $p < .001$), 5학년이 평균 3.40, 6학년이 평균 3.13으로, 5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보다 준법정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분석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7.46$, $p < .001$), 상위권 학생들이 평균 3.52로 준법정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 학생이 평균 3.03으로 준법정신이 가장 낮았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준법정신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달 용돈별 타인존중 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달 용돈이 1만원-2만원인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낮게 나타났다.

가정 특성별로 학생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표-13> 가정 특성별 준법정신

구	분	N	Mean	SD	F	p
부 학력	중졸 이하	82	3.19	0.56	8.78***	0.0002
	고졸	317	3.20	0.58		
	대졸 이상	165	3.42	0.60		
모 학력	중졸 이하	101	3.16	0.58	3.25*	0.0397
	고졸	368	3.26	0.58		
	대졸 이상	95	3.37	0.61		
부 직업	판매 기술직	102	3.22	0.58	1.99	0.1143
	자영업	157	3.22	0.56		
	사무직종	148	3.36	0.64		
	기타	157	3.24	0.58		
모 직업	판매 기술직	67	3.18	0.59	1.90	0.1096
	자영업	109	3.23	0.63		
	사무직종	44	3.43	0.56		
	가정주부	264	3.24	0.57		
	기타	80	3.36	0.62		
거주지역	시	166	3.46	0.63	15.22***	0.0001
	읍	230	3.23	0.56		
	면	168	3.12	0.55		
지역환경	도시	169	3.45	0.62	13.24***	0.0001
	농촌	295	3.20	0.59		
	어촌	100	3.13	0.48		
형제 수	1명	40	3.26	0.58	0.19	0.9055
	2명	249	3.28	0.60		
	3명	191	3.26	0.61		
	4명 이상	84	3.22	0.54		
양육태도	일방적	51	3.13	0.63	2.05	0.1062
	방관적	92	3.22	0.62		
	협력적	364	3.30	0.59		
	전적 신뢰	57	3.18	0.46		
계		564	3.26	0.59		

* p<.05, *** p<.001

먼저 아버지 학력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8.78, p<.001$), 아버지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졌을 때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평균 3.42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 고졸 학력자일때는 평균 3.19, 3.20으로 준법정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학력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25, p<.05$),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졌을 때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평균 3.37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 학력자일때는 평균 3.16으로 준법정신이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별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5.22, p<.001$),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평균 3.46으로 가장 높았고, 읍 지역 학생은 평균 3.23, 면 지역 학생은 평균 3.12로 준법정신이 낮았다. 즉 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환경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는데($F=13.24, p<.001$), 도시 지역 학생들은 평균 3.45로 준법정신이 가장 높았고, 어촌이 평균 3.13으로 준법정신이 낮았다. 즉 도시 지역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가장 높고, 어촌 지역 학생의 준법정신이 가장 낮았다.

형제 수별 분석에서 형제 수에 따라 준법정신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태도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부모 태도가 협력적일 때 준법정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5. 공익정신

공익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 평균 3.42로써 높지 않았다.

개인 특성별로 학생들의 공익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4>와 같다.

<표-14> 개인 특성별 공익정신

구	분	N	Mean	SD	T(F)	p
성	남	280	3.35	0.75	-2.29*	0.0223
	여	284	3.49	0.70		
학	초등학교 5학년	282	3.64	0.68	7.25***	0.0001
	초등학교 6학년	282	3.21	0.71		
성	상위권	60	3.64	0.84	5.94***	0.0001
	중상위권	171	3.57	0.66		
	중위권	227	3.31	0.72		
	중하위권	76	3.34	0.70		
	하위권	30	3.16	0.79		
용	5천원 미만	241	3.49	0.70	3.06*	0.0279
	5천원-1만원	156	3.46	0.76		
	1만원-2만원	109	3.24	0.67		
	2만원 이상	58	3.40	0.83		
계		564	3.42	0.73		

* $p < .05$, *** $p < .001$

성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 = -2.29$, $p < .05$), 남학생이 평균 3.35, 여학생이 평균 3.49로 여학생의 공익정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t = 7.25$, $p < .001$), 5학년이 평균 3.64, 6학년이 평균 3.21로, 5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보다 공익정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분석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 = 5.94$, $p < .001$), 상위권 학생들이 평균 3.64로 공익정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 학생이 평균 3.16으로 공익정신이 가장 낮았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공익정신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달 용돈별 공익정신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 = 3.06$, $p < .05$), 한달 용돈이 5천원 미만인 경우 공익정신이 평균 3.49로 가장 높았고, 1만원-2만원일

때에는 평균 3.24로 공익정신이 낮게 나타났다.

가정 특성별로 학생들의 공익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5>와 같다.

<표-15> 가정 특성별 공익정신

구	분	N	Mean	SD	F	p
부 학력	중졸 이하	82	3.32	0.83	3.31*	0.0374
	고졸	317	3.39	0.71		
	대졸 이상	165	3.54	0.71		
모 학력	중졸 이하	101	3.33	0.74	1.80	0.1660
	고졸	368	3.42	0.72		
	대졸 이상	95	3.53	0.74		
부 직업	판매 기술직	102	3.44	0.70	3.12*	0.0258
	자영업	157	3.40	0.70		
	사무직종	148	3.56	0.75		
	기타	157	3.31	0.75		
모 직업	판매 기술직	67	3.46	0.59	1.28	0.2776
	자영업	109	3.46	0.71		
	사무직종	44	3.61	0.71		
	가정주부	264	3.40	0.76		
	기타	80	3.33	0.75		
거주지역	시	166	3.70	0.74	19.52***	0.0001
	읍	230	3.35	0.67		
	면	168	3.25	0.73		
지역환경	도시	169	3.70	0.74	18.55***	0.0001
	농촌	295	3.30	0.67		
	어촌	100	3.32	0.76		
형제 수	1명	40	3.34	0.58	0.50	0.6850
	2명	249	3.44	0.75		
	3명	191	3.45	0.74		
	4명 이상	84	3.36	0.69		
양육태도	일방적	51	3.21	0.67	2.14	0.0940
	방관적	92	3.38	0.76		
	협력적	364	3.47	0.72		
	전적 신뢰	57	3.40	0.79		
계		564	3.42	0.73		

* p<.05, *** p<.001

먼저 아버지 학력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31, p<.05$), 아버지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졌을 때 학생들의 공익정신이 평균 3.54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 고졸 학력자일때는 평균 3.32, 3.39로 공익정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학력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공익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12, p<.05$), 아버지가 사무직중에 종사하는 경우 공익정신이 평균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기술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평균 3.44, 3.40으로 서로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학생들의 공익정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9.52, p<.001$),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공익정신이 평균 3.70으로 가장 높았고, 읍 지역 학생은 평균 3.35, 면 지역 학생은 평균 3.25로 공익정신이 낮았다. 즉 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공익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환경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는데($F=18.55, p<.001$), 도시 지역 학생들은 평균 3.70으로 공익정신이 가장 높았고, 농촌, 어촌은 평균 3.30, 3.3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도시 지역 학생들의 공익정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제 수별 분석에서 형제 수에 따라 공익정신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형제 수가 1명인 경우 학생들의 공익정신이 가장 낮았다.

부모 태도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부모 태도가 긍정적인 때 공익정신이 더 높게 나타났다.

6. 정의감

정의감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 평균 3.69로써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인 특성별로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표-16> 개인 특성별 정의감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280	3.65	0.69	-1.38	0.1690
	여	284	3.73	0.62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82	3.79	0.67	3.73***	0.0002
	초등학교 6학년	282	3.59	0.63		
성 적	상위권	60	3.93	0.68	15.74***	0.0001
	중상위권	171	3.93	0.53		
	중위권	227	3.58	0.66		
	중하위권	76	3.43	0.67		
	하위권	30	3.37	0.57		
용 돈	5천원 미만	241	3.68	0.63	0.68	0.5637
	5천원-1만원	156	3.74	0.68		
	1만원-2만원	109	3.63	0.61		
	2만원 이상	58	3.71	0.78		
계		564	3.69	0.66		

*** $p < .001$

성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의감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3.73, p<.001$), 5학년이 평균 3.79, 6학년이 평균 3.59로, 5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보다 정의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분석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5.74, p<.001$),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평균 3.93로 정의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 학생이 평균 3.37으로 정의감

이 가장 낮았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정의감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달 용돈별 정의감을 분석한 결과 용돈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 특성별로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17> 가정 특성별 정의감

구	분	N	Mean	SD	F	p
부 학력	중졸 이하	82	3.55	0.67	2.75	0.0646
	고졸	317	3.70	0.64		
	대졸 이상	165	3.75	0.66		
모 학력	중졸 이하	101	3.64	0.68	0.77	0.4654
	고졸	368	3.69	0.65		
	대졸 이상	95	3.75	0.65		
부 직업	판매 기술직	102	3.68	0.64	6.94***	0.0001
	자영업	157	3.62	0.66		
	사무직종	148	3.89	0.62		
	기타	157	3.58	0.66		
모 직업	판매 기술직	67	3.71	0.55	2.31	0.0567
	자영업	109	3.82	0.62		
	사무직종	44	3.79	0.71		
	가정주부	264	3.61	0.66		
	기타	80	3.71	0.70		
거주지역	시	166	3.88	0.67	9.98***	0.0001
	읍	230	3.61	0.66		
	면	168	3.61	0.59		
지역환경	도시	169	3.88	0.68	10.37***	0.0001
	농촌	295	3.61	0.63		
	어촌	100	3.60	0.62		
형제 수	1명	40	3.50	0.69	1.54	0.2031
	2명	249	3.72	0.67		
	3명	191	3.71	0.58		
	4명 이상	84	3.65	0.75		
양육태도	일방적	51	3.39	0.57	10.25***	0.0001
	방관적	92	3.46	0.67		
	협력적	364	3.78	0.64		
	전적 신뢰	57	3.72	0.66		
계		564	3.69	0.66		

*** p<.001

먼저 아버지 학력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정의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학력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정의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6.94, p<.001$), 아버지가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학생들의 정의감이 평균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기술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평균 3.68, 3.62로 서로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주부일 때 학생들의 정의감이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9.98, p<.001$),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정의감이 평균 3.88로 가장 높았고, 읍,면 지역 학생은 평균 3.61로 나타났다. 즉 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정의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환경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는데($F=10.37, p<.001$), 도시 지역 학생들은 평균 3.88로 정의감이 가장 높았고, 농촌, 어촌은 평균 3.61, 3.60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도시 지역 학생들의 정의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제 수별 분석에서 형제 수에 따라 정의감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형제 수가 1명인 경우 학생들의 정의감이 가장 낮았다.

부모 태도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0.25, p<.001$), 부모가 협력적이거나 신뢰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학생들의 정의감이 평균 3.78, 3.72로 높게 나타났고, 일방적, 방관적일 때 정의감이 평균 3.39, 3.46으로 낮게 나타났다.

7. 전체 시민의식

학생들의 전체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 평균 3.58로써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 특성별로 학생들의 전체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8>과 같다.

<표-18> 개인 특성별 전체 민주시민의식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280	3.52	0.49	-2.84**	0.0046
	여	284	3.64	0.45		
학 년	초등학교 5학년	282	3.69	0.46	5.58***	0.0001
	초등학교 6학년	282	3.47	0.46		
성 적	상위권	60	3.84	0.50	20.04***	0.0001
	중상위권	171	3.74	0.42		
	중위권	227	3.49	0.47		
	중하위권	76	3.39	0.39		
	하위권	30	3.28	0.36		
용 돈	5천원 미만	241	3.57	0.46	1.79	0.1479
	5천원-1만원	156	3.63	0.50		
	1만원-2만원	109	3.50	0.44		
	2만원 이상	58	3.60	0.52		
계		564	3.58	0.47		

** p<.01, *** p<.001

성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2.84, p<.01$), 남학생이 평균 3.52, 여학생이 평균 3.64로써 여학생의 시민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5.58, p<.001$), 5학년이 평균 3.69, 6학년이 평균 3.47로, 5학년 학생들이 6학년 학생보다 민주시민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20.04, p<.001$), 상위권 학생들이 평균 3.84로 민주시민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권 학생이 평균 3.28로 민주시민의식이 가장 낮았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민주시민의식 역시 높게 나타났다.

한달 용돈별 민주시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용돈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 특성별로 학생들의 전체 민주시민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19>와 같다.

<표-19> 가정 특성별 전체 민주시민 의식

구	분	N	Mean	SD	F	p
부 학력	중졸 이하	82	3.49	0.47	6.64**	0.0011
	고졸	317	3.55	0.45		
	대졸 이상	165	3.69	0.49		
모 학력	중졸 이하	101	3.50	0.47	3.51*	0.0307
	고졸	368	3.58	0.47		
	대졸 이상	95	3.68	0.48		
부 직업	판매 기술직	102	3.55	0.46	6.06***	0.0005
	자영업	157	3.55	0.44		
	사무직종	148	3.72	0.50		
	기타	157	3.50	0.47		
모 직업	판매 기술직	67	3.56	0.44	2.12	0.0775
	자영업	109	3.66	0.47		
	사무직종	44	3.70	0.51		
	가정주부	264	3.54	0.47		
	기타	80	3.55	0.49		
거주지역	시	166	3.76	0.51	20.14***	0.0001
	읍	230	3.53	0.44		
	면	168	3.46	0.42		
지역환경	도시	169	3.76	0.51	18.24***	0.0001
	농촌	295	3.50	0.43		
	어촌	100	3.53	0.43		
형제 수	1명	40	3.43	0.41	1.79	0.1486
	2명	249	3.61	0.48		
	3명	191	3.59	0.47		
	4명 이상	84	3.55	0.47		
양육태도	일방적	51	3.37	0.41	8.61***	0.0001
	방관적	92	3.45	0.47		
	협력적	364	3.65	0.47		
	전적 신뢰	57	3.55	0.43		
계		564	3.58	0.47		

* p<.05, ** p<.01, *** p<.001

먼저 아버지 학력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6.64, p<.01$), 아버지가 대졸 이상 학력자일 때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평균 3.69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 학력이 낮을 때에는 평균 3.49로 민주시민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학력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51, p<.05$),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자일 때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평균 3.68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 학력이 낮을 때에는 평균 3.50으로 민주시민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6.06, p<.001$), 아버지가 사무직중에 종사하는 경우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평균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기술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평균 3.55로 서로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직업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가 주부일 때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20.14, p<.001$),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평균 3.76으로 가장 높았고, 읍 지역 학생이 평균 3.53, 면 지역 학생이 평균 3.46으로 나타났다. 즉 큰 지역에 거주할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환경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는데($F=18.24, p<.001$), 도시 지역 학생들은 평균 3.76으로 민주시민의식이 가장 높았고, 농촌, 어촌은 평균 3.50, 3.53으로 민주시민의식이 비슷하였다. 즉 도시 지역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제 수별 분석에서 형제 수에 따라 민주시민의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형제 수가 1명인 경우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가장 낮았다.

부모 태도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8.61, p<.001$), 부모가 협력

적이거나 신뢰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평균 3.65, 3.55로 높게 나타났고, 일방적, 방관적일 때 민주시민의식이 평균 3.37, 3.45로 낮게 나타났다. 즉 부모 태도가 긍정적일 때 자녀들의 민주시민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 개선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과의 민주시민 조사영역을 타인존중, 협동심, 신의, 준법정신, 공의정신, 정의감의 6개 하위 영역이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표집학교는 제주도에 시·읍·면의 행정구역과 도시·농촌·어촌의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선정된 9개교의 5·6학년 학생 56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 의식 6개 하위 영역별 조사 결과 ‘협동심(4.15) >정의감(3.69) >신의(3.56) >타인존중(3.48) >공의정신(3.42) >준법정신(3.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 영역의 전체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전체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은 3.58로써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협동심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전통적인 제주도의 ‘삼무정신’의 영향이 끼친바가 크다고 보아진다. 반면 준법정신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법대로 살면 피해를 본다’는 어른들의 의식구조가 그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연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그리고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6개 하위 민주시민 영역 중 협동심과 정의감은 높은 의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4개 하위영역은 높지 않은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가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둘째, 개인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의 공통된 흐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5학년이 6학년보다 높으며, 학업성적에 있어서 상위권인 학생이 하

위권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전반적인 민주시민 의식이 더 높아져야 될 6학년이 5학년보다 낮고, 남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이 여학생보다 더 급속히 하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학년이 높고 사회화될수록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혹이면 본 연구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나 맹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대해 가정·학교·사회가 그에 따른 대비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역행하는 민주시민 의식의 구조를 시급히 되돌려 놓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가정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의 공통된 흐름은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사무직종에 근무할 때 높았으며, 거주지역이 크고 도시에 사는 경우에도 높게 나타났다. 또 형제수도 1명이나 4명 이상인 경우보다 2~3명인 경우에 높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방적·방관적일 때보다 협력적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볼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 신뢰롭고 협력적인 가정, 조직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는 부모를 둔 가정, 문화 수준이 높고 큰 지역사회에 위치한 가정의 학생일수록 민주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가정의 제반 교육적 환경 여건들도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제 언

초등학교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지향해야 할 몇 가지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을 제언해 본다.

첫째, 민주시민 교육은 그 사회에서 전개되는 민주화 의식이 충만되어 있을 때에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등학교생들인 경우 대부분의 생활방법을 학교에서 습득하기 때문에 학교가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교실현장에서의 교사의 지도유형은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유념하여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둘째, 민주생활이란 '자기 통제·자기 결정·자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학급회의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민주적 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겠다.

셋째,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도덕교육은 민주시민 생활 덕목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내면적인 가치가 형성되도록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하겠다.

민주사회는 민주시민이 만들어간다. 민주시민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지고 장려되어야 하며, 그러기에 초등학생 때 생활이나 의식을 보면 장차 이루어질 우리나라 민주사회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제주도내 초등학생의 시민생활과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과 방법 설계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곽병선 외(1994), 「민주시민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1993), 「민주시민 교육 지도자료」, 제96호.
- _____ (1994),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시 인쇄 공업 협동조합.
- _____ (1997),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7),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도덕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교육학총서편찬위원회편(1987), 「교육학총서」, 서울:교육서관.
- 김경웅편저(1993), 「정치 교육론」, 서울: 유풍출판사.
- 신정현 외(1987),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탐구당.
- 이극찬(1983), 「민주주의」, 종로서적.
- 정세구(1983), 「국민윤리 교육론」, 서울: 교육출판사.
- _____ (1985), 「국민정신교육의 과제」, 교육과학사.
- _____ (1988), 「청소년 이념연구」, 배영사.
- 허영식(1996),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배영사.

<논 문>

- 김갑철(1991), “도덕성 회복과 윤리교육의 과제”, 한국윤리학회.
- 김윤희(1991), “국민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창식(1992), “학교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 자질육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식(1987),“도덕교육 전개과정에 있어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제22집,
공주교육대학.
- 문용린(1990),“한국사회의 도덕적 위기: 그 본질과 대책”,민주문화논총, 창간호.
- 안창호(1995),“국민학생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의식의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인종(1990), “도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제10호.
- 이병오(1994), “국민학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기(1981), “산업사회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소.
- 이영희(1994), “국민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전숙자(1996), “생활개혁과 시민교육”, 사회와 교육, 제23집.
- 정세구(1986), “시민정신 교육”, 「미래지향 인간교육」,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정용술(1991),“우리는 민주시민 교육의 실천자”,한국민주시민교육 연구회보, 제14호.
- 최유선(1997),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초은윤용탁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문창출판사.
- 최종덕(1985), “시민교육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한국사회교육학회 제36차 연구
발표회 논문집
- 홍성기(1992), “초등학교 도덕과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CONSCIOUSNESS of PUPILS' DEMOCRATIC CITIZEN

— Centering on pupils in 5th and 6th grade in Cheju-do —

Kho, Chang - Keun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Chang-Beom

Our country is headed for democratic society. According to this, at school teacher educates children to be democratic citizens, but unfortunately it is true that we don't have statistic data of what level of civic consciousness children have. So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f pupils in Cheju area and break it down, and to get the basic data of educational improvement of democratic citizen for them.

With a view to the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for pupils, I was prepared for the questionnaires with six changing factors of subordinate independence, such as 'respect for other people, cooperative spirit, faithfulness, law-abiding spirit, spirit for public good and a sense of justice' and made a sample survey of 564 pupils in 5th and 6th grade among nine elementary schools of Cheju area.

And then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as divided into two and broken down: one is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x, grade, academic achievement, the amount of allowance), and the other is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home characteristics (academic career of parents, occupation of parents, resident district, environment of resident district, the number of sisters and br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As a result, the breakdown of two divisions was as follow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First,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six subordinate sections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showed that cooperative spirit(4.15) is highest and in order, spirit of justice(3.69), faithfulness(3.56), respect for other people(3.48), spirit of public good(3.42) and law - abiding spirit(3.26). And the average mark of six elements is 3.58 and it was somewhat high. As a result, I found a worrying problem that the higher the grade and socialization get, the lower morality gets.

Second, the result of the level of civ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school girls is higher than school boys, pupils in 5th degree higher than those in 6th degree and pupils of high rank higher than those of low rank.

And third, the result of the level of civic consciousness according to home characteristics showed that pupils of parents' good educational background is higher than those of not so, pupils of white collar parents higher than those of not so, pupils of high cultural level and city area higher than those of not so, pupils of 2 to 3 sisters and brothers higher than those of less than and more than 2 to 3 sisters and brothers, and pupils of home of parents' positive and cooperative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higher than those of not so. In the light of this result, I reached a conclusion that all the conditions of educational environment of home have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democratic civic consciousness of pupils.

— 附 錄 —

설 문 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학생 여러분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좀더 나은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단지 다만 학생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지는 연구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답변은 귀중한 연구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오니 한문장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 고창근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 혀 않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그 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6	나는 교통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17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18	나는 공원에 놀러가서 놀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운다.					
19	아무리 양심적으로 물건을 팔아도 성공하지 못한다.					
20	학급 회의를 할 때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					
21	나는 친구가 옳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못하게 한다.					
22	내가 하기 어려운 일도 힘을 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23	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24	나는 공부를 못하거나 약한 친구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다.					
25	나는 자라서 이웃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다.					
26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다.					
27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28	나는 도서관, 식당,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한다.					
29	나는 환경보호적인 차원에서 항상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한다.					
30	나는 학교의 모든 물건은 내 물건처럼 소중히 여겨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 그렇지 않 다	허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그 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31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면 지적해 주거나 충고해 준다.						
32	나와 다른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는 항상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해결한다.						
33	나는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린적이 있다.						
34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꼭 책임을 진다.						
35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36	나는 가족들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주려고 한다.						
37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참지 못한다.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